

세상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함께 걷기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의 초청으로 2016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1월 15일 금요일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38개 성공회 관구를 대표하는 관구장들과 북미 성공회 (the Anglican Church of North America)의 대주교가 참석하였다. 첫째날 아침은 기도와 금식으로 지켜졌다.

2016년 관구장 회의에서는, 인간의 성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다른 다양한 사항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하고자 하였다.

본 관구장 회의는, 회의 주제를 함께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첫번째 토의 주제로 현재 세계 성공회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최근 미국성공회(The Episcopal Church)가 결혼에 관한 교리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관구장 회의기간동안 모든 관구장들은, 우리안의 서로 다름에 기인하는 그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된 우리라는 점을 깊이 인지함으로써, 세계성공회라는 하나된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걸어갈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실질적인 상황하에서 어떻게 인지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계성공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 강한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하였던 소모임으로부터 한가지 제안을 받았다. 지난 대주교 모임의 성명서들의 내용과 일관된 원칙하에서 작성된 이들의 제안서는, 미국성공회가 최근 진행한 결혼에 대한 교리의 변경 결정이 세계 성공회 내에서 어떤 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된 내용들은 본 문서 부록 A의 7번째 단락과 8번째 단락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욕구는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하지만 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향후 3 년간 ‘미국성공회가 종파간 대화 및 타종교와의 대화에서 세계성공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제한하며, 세계 성공회 내부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그리고 세계성공회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교리나 정책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의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성공회에 요청함으로써, 세계성공회 내부의 서로간의 다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세계성공회내의 관계의 치유과 상호신뢰의 회복, 오래된 상처의 치유, 동질성의 인지와 또한 서로간의 다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안에 우리 공동체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 (Task Group)를 만들것을 제안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관구장들은 이러한 제안들을 채택하였다.

우리는향후 세계성공회의 일치를 저해하는 교리 또는 정책에 대한 일방적이며 단독적인 결정이 진행되었을 상황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점차 발전시킬 것이다.

관구장들은 동성애 혐오와 관련된 편견과 폭력에 반대하며, 개인의 성적 성향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목적 보살핌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편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권리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며, 모든 관구장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어떠한 범죄적인 처벌들에 대한 거부의사를 재확인한다.

관구장들은, 세계성공회를 포함한 기독교 교회내에서 사람들의 성적 정체성에 따라 그들을 차별대우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깊은 상처가 발생하였던 점을 인지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관구장들은 그들의 깊은 슬픔을 표명하며, 신의 사랑은 그들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며, 교회는 이와 다른 어떠한 의미도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본 관구장 회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나온, 향후 세계성공회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웰비 대주교의 자문과 발언들을 지지한다.

북미성공회 (the Anglican Church of North America)의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요청에 대하여는, 북미성공회가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자문기관인 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에 소속되는 점을 인정한다. 관구장들은,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되기를 희망하는 북미성공회의 이러한 요청이, 성공회공동체 내의 정책과 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파리에서 지난달 벌어진 UN 세계 기후변화 컨퍼런스(The 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와 관련하여 본 회의는, 전세계 2 백만명 이상의 서명 청원과, 성공회 환경 네트워크의 요청사항을 전달 받았다. 화석 연료 사용 금지, 아프리카 사막의 확장, 해수면 상승에 따른 태평양 연안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종교로 인하여 촉발된 폭력행위와 이로써 벌어지는 인간과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폭력행위들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관구장들은, 매일의 삶과, 이러한 환경이 그들의 사목 및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살아 있는 증언을 하였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전세계의 다양한 종교단체들간의 대화와 상호책임, 다양한 사람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성공회 관구장들은, 종교로 인하여 촉발된 그 어떠한 폭력행위의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이러한 악한 세력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관구장들은 세계성공회 자문기관인 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로 부터, 세계성공회 공동체에서 사용될 포괄적인 어린이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기를 고대한다.

복음전도(복음주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관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힘이 있음을 목도하였다. 그들은 복음전도(복음주의)와 관련된 경험들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었다.

“관구장들은 모든 성공회 교회와 함께, 세상의 모든이들을 복음의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초대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적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세상에 공표하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본 문서 부록 B 참조)

관구장들은 차기 람베스 컨퍼런스를 2020 년에 진행하자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관구장들은, 부족주의, 인종주의, 국가주의와 이의 지원 네트워크 및 부패와 타락의 깊은 유해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불가분하게 전쟁과 폭력, 그리고 기아에서 기인함을 숙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세계성공회의 상임이사(Secretary General)에게, 차기 대주교 회의에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주교들은 차기 대주교 회의를 2017 년과 2019 년에 진행할 것에 동의하였다.

대주교들은 세계성공회 공동체 실무집행단체 (Anglican Communion Office)의 모든 임직원들과, 특히 상임이사 (Secretary General), 그리고 램베스 궁 및 웨스트민스터의 영국성공회 사무실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대주교들은 이들의 환대와 후한 대접에 감사하며, 캔터베리 대성당 주임사제와 모든 대성당 스태프들의 친절에 깊은 감사함을 전한다. 이들의 모든 기여는, 본 회의를 기도 속에서, 서로 경청할 수 있는 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에 크게 일조하였다. 또한 성 안셀모 커뮤니티의 기도, 조력 및 지원, 그리고 Jean Vanier 의 연설들, 또한 성 어거스틴의 복음성경 성유물과 함께 우리와 함께 했던 성 그레고리의 주교장 머릿부분 성유물을 대여해 준 성 그레고리 커뮤니티측에도 특별한 감사를 보낸다.

대주교들은, 본 회의 기간동안 함께한 시간들을, 우리 안에 보여진 하느님의 임재하심과 여러가지 증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들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한다. 이들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각 대주교들을 향한 개인적인 보살핌과, 특별히 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가 보여준 겸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함께한 한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감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였으며,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성공회 교인들의 깊은 신앙적 증언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이번 대주교 모임 기간동안 바쳐진 많은 이들의 기도에 깊은 감사함을 전한다.

부록 A

1. 우리는 세계성공회 관구장들로서,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련하여,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깊은 차이점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의 일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2. 미국성공회에서 최근 진행된 결혼에 대한 교회법 변경 결정은, 결혼에 대한 교리문제에 있어서 대다수의 우리 관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르침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이탈된 것임을 보여준다. 다른 관구들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변화들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3.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세계성공회 공동체에 더 깊은 고통을 야기했다는 것을 인식한다.
4. 성서적 가르침에 입각한 교회의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신앙을 통한 평생의 결합으로 인지한다. 여기 모인 대다수의 관구장들은 이 가르침을 재확인한다.
5. 이전 관구장 회의의 결정과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볼때, 공교회적 일치를 상실한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들은, 많은 우리들에게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지는 관계들을 통하여 암시되었던 상호책임성과 상호의존성으로부터의 이탈로 여겨진다.
6.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공동체에 추가적인 손상을 끼치며, 우리 사이에 깊은 불신을 생성한다. 이는 우리 사이에 심각한 거리감을 만들며, 성공회 공동체 기구들의 기능 및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는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에 커다란 중압감을 형성한다.
7.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욕구는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하지만 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향후 3 년간 ‘미국성공회가 종파간 대화 및 타종교와의 대화에서 세계성공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제한하며, 세계 성공회 내부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그리고 세계성공회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교리나 정책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의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성공회에 요청함으로써, 세계성공회 내부의 서로간의 다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8. 또한 우리는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세계성공회내의 관계의 치유와 상호신뢰의 회복, 오래된 상처의 치유, 동질성의 인지와 또한 서로간의 다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안에 우리 공동체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 (Task Group)를 만들것을 제안하였다.

부록 B

성공회 관구장들로서 우리는, 전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목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선언한다.

지금까지 그 어떤 순간보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과 사랑이 하느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필요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우리는 이를 세상에 알리기를 고대한다.

우리는 복음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적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세상에 공표하며, 세상의 모든이들을 복음의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초대하는 일에 매진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나타나는 진실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은 세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안에서, 예수의, 그리고 예수를 위한 증인들이 된다.

우리는기도하고, 경청하고, 사랑하고, 고통과 희생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도록 하는 일에 함께 정진할것을 서약한다.

성령이여 오소서!